

서천군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주민의식 조사

조영재 · 윤정미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
choyj@cni.re.kr / coco@cni.re.kr

본 연구는 '서천군 한계마을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해당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식(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서천군 한계마을정책 개요
3. 한계마을 주민 의식조사
4. 요약 및 결론

요약

- 한계마을정책 목표에 대해서 대부분의 마을에서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 조성 (행복한 커뮤니티 환경)'을 가장 우선순위로 의견을 제시함
 - 다음으로는 '살기 좋고 살기에 편안한 마을 조성 (안정적인 정주체계)',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마을 조성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주도)' 등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나타남
- 한계마을정책의 주된 대상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마을공간', '사람 또는 마을주민' 등의 순서로 나타남
 -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한계마을정책 세부사업에 대한 인식으로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모두 높게 나타난 사업은 '한계마을 지원단 조직 및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체제형 주말별장 조성' 두 개의 사업으로 조사됨
 -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지만 실현가능성이 보통인 사업으로는 '청년(대학생) 교류단 운영 및 한계마을 활동가 육성', '마을재생사업(마을만들기) 추진', '새로운 마을조성 (신규마을 조성)', '한계마을 연합회 조직',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촌마을 토지·주택 정보 제공' 등이 제시됨
- 향후, 비록 한계마을정책 세부사업에 있어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은 낮게 조사된 사업일지라도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교육이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도와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0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서천군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중 과소화·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향후 대책마련이 요구됨
 - 2017년 기준 서천군의 316개 마을(행정리) 중 인구 50명 이하 & 65세 이상 인구 비율 50% 이상인 과소·고령마을은 32개 마을임
 - 과소·고령마을 중 고령인구 비율이 70% 이상인 마을은 17개 마을(56.6%), 80% 이상인 마을은 5개 마을(16.6%)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서천군에서는 2018년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방안」 연구용역 진행을 통하여 과소화·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가칭 ‘서천군 한계마을정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2019년도에는 ‘한계마을정책’의 시범적인 1단계 사업으로 ‘마을역사 아카이브 구축’, ‘청년(대학생) 교류단 공모 및 운영’, ‘한계마을연합회 조직 및 운영’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서천군 한계마을정책’ 추진에 앞서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한계마을 관련정책과 사업에 대해 현장연구를 통해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 제안된 ‘서천군 한계마을정책’을 검토함
 - 둘째, 현장연구를 통하여 ‘한계마을정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에 대한 관련 주민의 의식을 파악함
 - 셋째, 서천군 한계마을정책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함

02

서천군 한계마을정책 개요¹⁾

1. 비전 및 목표

● 비전 : ‘克世拓道(극세척도)’

-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마을모델을 만들어 가는 서천군 농어촌마을’로 미래비전 설정

● 목표

- **안정적인 정주체계** : 국토정주체계 기본단위인 마을의 기능과 정체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주체계 확립
- **지속 가능한 농어촌마을** : 농어촌마을의 파소·고령화, 소멸위기 극복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마을 조성
- **행복한 커뮤니티 환경** : 약화된 공동체의 복원과 재편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커뮤니티 환경 마련
-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주도** :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을 배려한 차별화된 정책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주도하는 혁신정책 모델 구축

1) 「서천군, 2018,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방안」을 바탕으로 재정리



그림 1. 서천군 한계마을정책의 미래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 **사람 : 생애기간 삶의 질의 지속적 확보 및 새로운 인적자원의 유치**
 - 현재 마을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도시민, 청년 등 새로운 인적자원을 유치하여 사람의 공동화에 대응
- **공간 : 기초정주공간으로의 유지·관리 및 새로운 마을 활력공간으로의 재창조**
 - 쇠퇴하는 농어촌마을의 공간을 정주공간으로서 유지·관리하고, 마을재생·재편 및 경제기반의 확충 등을 통하여 마을을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재창조함으로써 공간의 공동화에 대응
- **공동체 : 마을공동체 정체성의 유지·계승 및 지역연계 활력 커뮤니티 재창출**
 - 기존 마을의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체성을 유지·계승하고,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연계·협력을 통하여 함께 활기찬 커뮤니티를 창출함으로써 공동체의 공동화에 대응
- **추진체계 :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시스템의 마련**
 - 사람의 공동화, 공간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에 대응한 관련정책의 효율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보’, ‘제도 및 조직’, ‘예산’의 행·재정 지원시스템을 구축

3. 부문별 세부사업

1) 한계마을 119 지원단 조직 및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한계마을 119 지원단’ 구성 및 마을로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한계마을 말벗돌보미’ 위촉 및 활동

2) 한계마을 주민수당 지급 공론화 및 추진

- 한계마을 주민수당 논의 및 공론화
- 한계마을 주민수당 대상마을 선정 및 실시
- 무상지급보다는 한계화 극복을 위한 주민노력의 측면에서 단서조항(읍선) 검토

3) 한계마을 직접지불제도 운영

- 한계마을 대상의 다양한 직접지불제도 마련 및 운영

4) 고령친화형 6차산업 발굴 및 육성

- 소규모 고령친화형 6차산업 모델 발굴 프로젝트 추진
- 소규모 고령친화형 6차산업 육성
- 한계마을 연계 농촌마을 6차산업화 인력 및 조직 육성

5) 농촌마을 공동체영농 육성

- 마을 공동체영농 모델 개발, 마을영농사업단 설립 및 공동체영농 추진

6) 마을재생학교 운영

- 준한계마을(또는 일부 한계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재생학교’ 운영
- 한계마을의 경우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 검토

7) 향우청년회 조직 및 귀향운동 전개

- 한계마을 향우청년회 조직, 한계마을 향우청년회 활동(지원) 및 귀향운동 전개
- 한계마을 향우청년회를 중심으로 한계마을활동가, 지역매니지먼트 활동 등을 장려

8) 청년(대학생) 교류단 운영 및 한계마을 활동가 육성

- 전국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계마을 교류단 공모 및 선정
- 한계마을 활동가로 육성

9) 체재형 주말별장 조성

- 한계마을 빈집정비 및 활용성 제고, 체재형 주말별장 조성

10) 한계농지 자원화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민간투자 장려
- 친환경 자연에너지 시설(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경제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

11) 마을재생사업 추진

- 마을재생학교를 수료하였거나 이와 동일한 역량을 갖춘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경관)만들기 추진
- 경관조례(경관협정)를 근거로 공간(마을)의 공동화 관리

12) 작은거점 만들기

- 초등학교 학군, 정서적 유대관계 등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비교적 접근성이 양호한 다양한 형태의 작은 거점을 조성

13) 거점 문화공간 ‘카페’ 조성

- 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사업과 연계한 문화공간 ‘카페’ 조성

14) 신규커뮤니티 마을

- 한계마을 등 과소지역을 중심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기존 마을공간을 활용하여 주택, 건물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신규 커뮤니티 마을을 조성

15) 마을역사 아카이브 구축

- 마을역사 아카이브 구축 : 마을의 유·무형 자원, 역사 및 문화유산, 구술전래 자료, 근현대 사진, 마을명 및 지명의 유래, 주민 생활상 등을 조사하고 기록물로 보존
- 한계마을 활동가 등과 연계한 한계마을지킴이 활동 지원

16) 한계마을연합회 조직 및 운영

- 서천군 한계마을을 중심으로 각 마을의 이장 또는 리더(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된 한계마을연합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 지원

17) 한계마을 커뮤니티 재편 추진

-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 기능적 재편 추진 : 커뮤니티 연합형, 커뮤니티 통합형, 커뮤니티 흡수형

- 공간적 재편 추진 : 마을 공간·커뮤니티 재구성형, 신규 공간·커뮤니티 조성형, 일부 이전형, 집단 이전형

18) 지역매니지먼트 구성 및 활동

- 지역매니지먼트 공모 및 지역단위 자문전문가 POOL 구성
- 지역매니지먼트 활동(지원) : 마을재생학교와 연계한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방문 교육 및 마을 재생·재편의 자문 실시

19) 한계마을 모니터링 및 진단

- 모든 마을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진단·관리시스템 구축
- 농촌마을 진단 : 인구의 공동화, 토지 및 경제기반의 공동화, 커뮤니티의 공동화 등을 바탕으로 농촌마을의 한계화 진행 실태를 진단하고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

20) 인재·토지뱅크 구축 및 원스톱(one-stop)창구의 운영

- 인재뱅크 및 토지뱅크의 구축, 원스톱(one-stop)창구의 설치 및 운영

21) 한계마을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 단기적으로는 기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기능확대를 통해 운영, 중장기적으로는 독립된 중간지원조직 운영, 중간지원조직은 한계마을정책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마을 모니터링 및 관리, 마을 한계화 실태 파악, 마을재생학교의 운영 및 주민역량 강화, 관련정책 추진 중간지원 등 수행

22) 한계마을 대책위원회 조직 및 운영

- 초기에는 한계마을 T/F팀을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식적인 한계마을대책위원회를 발족, 지자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계마을 주민(한계마을연합회)대표, 관련 전문가, 행정, 의원 등으로 구성된 ‘한계마을 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조직(사무국: 한계마을 중간지원조직)

23) 한계마을지원(경관)조례 제정

- 서천군 한계마을지원조례 제정
- 한계마을의 경관관리에 관한 항목을 조례에 명기

24) 한계마을 활성화 기금 운영

- ‘고향마을 살리기’ 캠페인 추진 및 활성화 기금 마련 홍보
- 한계마을 기부제도 운영

03

한계마을 주민 의식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마을 선정

-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방안(2018)」에서 정량적 평가지표와 정성적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선정된 8개 한계마을 중 4개 마을을 대상마을로 선정함
- 최종적으로 화양면 안보리, 한산면 동지2리, 문산면 수암2리, 마산면 은전리 등 4개 마을을 선정함

● 조사일자

- 2018년 11월22일(목)

● 조사방법 및 대상

- 마을방문에 의한 마을이장 및 기타 주민대표 등과의 대면 인터뷰 조사

● 조사내용

- 대상마을 일반현황
- 한계마을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의식
- 한계마을정책 세부사업에 대한 의식 (조사가능성, 주민 이해도 등을 고려한 일부 사업을 대상)
- 기타 의견 등

2. 조사결과

1) 대상마을 일반현황

● 화양면 안보리

- 실제거주 인구는 25명, 15가구 정도로 독거노인이 대부분임
- 65세 이하가 3명 정도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주민이 80대 이상임
- 마을에 빈집 및 폐가가 13~14호가 방치되어 있음
- 인력이 부족하여 현재 4가구 정도만 농사를 짓고 있음
- 최근 3년간 2가구 정도가 이주해 들어왔으며 마을주민과의 갈등은 없음
- 마을에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는 많으나 실제 토지거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한산면 동지2리

- 실제거주 인구는 20명 이하에 14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음
- 주민의 대부분이 독거노인이며 인근 공동생활홈 등에서 이주생활을 하고 있음
- 65세 이하는 7명 정도이며 어린이도 2명이 거주하고 있음
- 빈집 및 폐가는 7~8호가 있음
- 최근 3년간 전입(귀농·귀촌 등)가구 및 인구는 없음

● 마산면 은전리

- 실제거주 인구는 26명 정도로 대부분 60대 이상인 독거노인임
- 65세 이하 7명에 나머지는 모두 65세 이상임
- 최근 3년간 2가구(3명) 정도가 이주해 들어옴
- 전입해 들어오는 외지인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 문산면 수암2리

- 실제거주 인구는 40명 이하로 1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60대 이상임

- 65세 이하 5명, 65세~75세 16명 정도임
- 최근 3년간 50대 부부 1가구가 전입해 들어옴

[조사대상마을 일반현황]

	화양면 안보리	한산면 동지2리	마산면 은전리	문산면 수암2리
마을 실제거주 인구 (가구수)	약 25명 15가구	20명 이하 14가구	약 26명	40명 이하
독거노인 등 인구구성	독거노인이 대부분, 65세 이하 3명 정도 대부분 80대 주민	대부분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이주) 65세 이하 7명 정도(어린이 2명)	65세 이하 7명, 65세 이상 19명	1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60대 이상, 60세 이하 5명, 65~75세 16명
빈집·폐가 호수	13~14호	7~8호	-	-
최근 3년간 전입인구 (가구수)	2가구	없음	3명, 2가구	1가구 (50대 부부)

2) 한계마을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의식

● 한계마을정책 목표에 관한 의식

- 한계마을정책 목표에 대해서 대부분의 마을에서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 조성 (행복한 커뮤니티 환경)’을 가장 우선순위로 의견을 제시함
- 다음으로는 ‘살기 좋고 살기에 편안한 마을 조성 (안정적인 정주체계)’,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마을 조성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주도)’, ‘인구감소, 고령화에도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는 마을 조성 (지속가능한 마을)’ 등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나타남

[한계마을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목 표
1순위	(행복한 커뮤니티 환경)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 조성
2순위	(안정적인 정주체계) 살기 좋고 살기에 편안한 마을 조성
3순위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주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마을 조성
4순위	(지속가능한 마을) 인구감소, 고령화에도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는 마을 조성

● 한계마을정책 대상에 대한 의식

- 한계마을정책의 주된 대상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곧 기존 공동체를 포함한 마을의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지속가능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마을공간’이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귀농·귀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을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유희부지 등을 활용하여 재개발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기타, ‘사람 또는 마을주민’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한계마을정책 대상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정책대상
1순위	마을공동체
2순위	마을공간
3순위	사람 · 마을주민

● 한계마을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의식

- 한계마을정책의 추진전략에 있어 ① ‘기존주민의 삶의 질 확보, 기존공간의 유지·관리, 기존공동체 유지·계승’과 ② ‘새로운 인적자원의 유치, 새로운 활력공간으로의 재창조, 새로운 공동체 재창출’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각각의 마을별로 다양한 의견을 보임
- 우선, 화양면 안보리는 다양한 귀농·귀촌인 등 외지인이 많이 들어오기 위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주민·공간·공동체’ 보다는 ‘새로운 인적자원·공간·공동체’에 정책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한산면 동지2리의 경우는 신·구주민간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주민·공간·공동체’와 ‘새로운 인적자원·공간·공동체’에 동일한 비중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마산면 은전리는 마을로 외지인이 다수 전입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인적자원·공간·공동체’ 보다는 ‘기존의 주민·공간·공동체’에 정책을 집중하여

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이와 함께 실체는 마을내 토지와 빈집이 없어 외지인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신·구 주민간의 갈등의 문제를 향후 해결과제로 제시함

- 문산면 수암2리는 마산면 은전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적자원·공간·공동체’ 보다는 ‘기존의 주민·공간·공동체’에 정책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외지인의 전입에 대해 전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귀농·귀촌인을 환영하고 있으며, 기존 마을이 깨끗하고 살기 좋아야 많은 외지인이 마을로 전입해 들어올 수 있다는 의견을 보임

[한계마을정책 추진전략의 비중]

대상마을	기존 주민·공간·공동체에 집중	동일	기존 인적자원·공간·공동체에 집중
화양면 안보리			○
한산면 동지2리		○	
마산면 은전리	○		
문산면 수암2리	○		

3) 한계마을정책 세부사업에 대한 의식

① 한계마을 지원단 조직 및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대부분의 마을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임
- ‘식사배달 서비스’ 등 예전에는 유사한 사업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져 본 사업이 매우 필요함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 귀농인협의회 등을 통해 이발, 도배, 방충망 교체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이 요구됨
- 농업활동 등에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함

② 한계마을 주민수당 및 직접지불제도

- 대부분의 마을에서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가구당 20만원~30만원이 적합하고, 최소 10만원~20만원은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 반면, 일부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보임

③ 고령친화형 농업 육성 및 농촌마을 단위 공동체 영농 육성

- 대부분의 마을에서 의미는 있지만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의견을 보임
-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고령농·소농 위주의 농가 구성으로 논농사의 경우는 대부분 외부에 위탁하는 형태(일부는 마을이장 등이 도와주는 형태)이고 밭농사의 경우는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친화형 농업 육성이나 마을단위 공동체 영농 육성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④ 마을재생을 위한 주민교육

-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쉽지 않다는 의견과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함
- 화양면 안보리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대상마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문산면 수암2리는 농식품부 권역단위사업으로 공동우물 복원, 도로확포장 등의 마을만들기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⑤ 향우청년회 조직 및 귀향운동 전개

- 일부마을에서는 회관 정비 등에 출향인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바가 있으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향우청년회나 향우회 등의 조직이 부재한 실정이며, 새롭게 조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임
- 귀향운동에 대해서도 일부 출향인 또는 외지에 있는 자녀들의 귀향 의사는 있으나 실제 귀향 수요가 많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

⑥ 청년(대학생) 교류단 운영 및 한계마을 활동가 육성

- 대부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그러나 수당지급 등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보임

⑦ 체재형 주말별장 조성

- 대부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실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임
- 빈집 등의 유휴자원을 활용해 전입해 들어오려는 수요는 있으나 실제 빈집 등을 매입하기가 쉽지 않는 실정임
- 공공지원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외지인에 임대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빈집이나 폐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임

⑧ 마을재생사업(마을만들기) 추진

- 마을재생사업은 대부분 필요로 하고 추진을 원하고 있음
- 일부마을에서는 마을 안길 포장, 팔각정 조성, 화장실 정비, 농로 및 수로 정비 등의 사업(안보리)뿐만 아니라 마을 자체적인 기금조성을 통한 꽃길 조성을 추진(동지2리)한바 있음
- 반면, 주민의 수가 적고 고령화되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며, 적어도 10여명의 젊은층이 있어야 마을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보임

⑨ 인근 마을에 생활서비스 거점 만들기

- 대부분의 마을이 인근 서천읍, 화양, 군산, 한산, 홍산 등의 지역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생활서비스를 충족하고 있어 거점 만들기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서천읍의 하나로마트의 경우는 구입한 물품의 배달과 함께 해당 고객도 함께 집까지 이 동시켜주는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음

⑩ 새로운 마을 조성 (신규마을 조성)

- 대부분의 마을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마을의 구성원이 기존의 주민보다 외지인이 많아지는 것은 꺼려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주민과 새로운 신규주민간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음
- 또한, 기존 고령주민의 이주가 쉽지 않고 자녀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함

⑪ 마을역사 조사 및 기록

- 기존 마을의 생활상과 정체성, 역사 등을 조사하여 기록화 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다양한 의견을 보임
- 즉, 마을의 역사가 더 사라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조사하여 기록·계승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반면, 이미 대부분의 역사자료가 다 사라져서 조사할 수 없으며 마을역사의 기록·계승 역시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됨

⑫ 한계마을 연합회 조직

- 여러 한계마을이 연합회를 조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음
- 또한, 그 연합회의 조직이 서천군 전체를 범위로 하는 것 보다는 인접한 지역내의 몇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그러나 현재 마을이 소외되지 않았고 불만이 없으며 연합회 등의 조직 보다는 마을이장 등의 마을리더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⑬ 마을(행정리) 행정구역 개편이나 인근 마을과의 공동체 형성

- 행정구역 개편이나 인근 마을과의 연합공동체의 형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마을주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
- 특히, 마을기금의 관리, 행정으로부터의 지원금 분배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현재 마을(행정리)를 벗어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은 불가능하며 또한 공동으로 해야 할 공동체 활동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⑭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촌마을 토지·주택 정보 제공

- 대부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현재 농지은행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좋은 땅은 민간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고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좋지 않은 토지만을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문제점을 제기함
- 특히, 공공이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공시지가 이상을 받을 수 없으면 주민이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과 민간 부동산 등에서 반대가 심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⑮ 방치된 빈집 등 경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

- 모든 마을에서 방치된 빈집·폐가·폐건물 등에 대해서 규제 등을 통해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견을 제시함
-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나, 실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함

[한계마을정책 세부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명	필요성	실현 가능성
① 한계마을 지원단 조직 및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
② 한계마을 주민수당 및 직접지불제도	○	△
③ 고령친화형 농업 육성 및 농촌마을 단위 공동체 영농 육성	△	×
④ 마을재생을 위한 주민교육	△	△
⑤ 향우청년회 조직 및 귀향운동 전개	△	×
⑥ 청년(대학생) 교류단 운영 및 한계마을 활동가 육성	○	△
⑦ 체재형 주말별장 조성	○	○
⑧ 마을재생사업(마을만들기) 추진	○	△
⑨ 인근 마을에 생활서비스 거점 만들기	×	×
⑩ 새로운 마을 조성 (신규마을 조성)	○	△
⑪ 마을역사 조사 및 기록	△	△
⑫ 한계마을 연합회 조직	○	△
⑬ 마을(행정리) 행정구역 개편이나 인근 마을과의 공동체 형성	×	×
⑭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촌마을 토지·주택 정보 제공	○	△
⑮ 방치된 빈집 등 경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	○	△

※ ○ (매우)동의, △ 보통, × 동의하지 않음

04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서천군 한계마을정책’ 추진에 앞서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한계마을 관련정책과 사업에 대해 현장연구를 통해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서천군의 8개 한계마을 중 4개 마을(화양면 안보리, 한산면 동지2리, 마산면 은전리, 문산면 수암2리)을 선정하여 한계마을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함
- 한계마을정책 목표에 있어 ‘행복한 커뮤니티 환경’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1순위 : (행복한 커뮤니티 환경)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 조성
 - 2순위 : (안정적인 정주체계) 살기 좋고 살기에 편안한 마을 조성
 - 3순위 :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주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마을 조성
 - 4순위 : (지속가능한 마을) 인구감소, 고령화에도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는 마을 조성
- 한계마을정책의 주된 대상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마을공간’, ‘사람 또는 마을주민’ 등의 순서로 나타남
 -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한계마을정책의 추진전략에 있어 ① ‘기존주민의 삶의 질 확보, 기존공간의 유지·관리, 기존공동체 유지·계승’과 ② ‘새로운 인적자원의 유치, 새로운 활력공간으로의 재창조,

새로운 공동체 재창출'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각각의 마을별로 다양한 의견을 보임

- 한계마을정책 세부사업에 대한 인식으로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모두 높게 나타난 사업은 '한계마을 지원단 조직 및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체재형 주말별장 조성' 두 개의 사업으로 조사됨
 -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지만 실현가능성이 보통인 사업으로는 '청년(대학생) 교류단 운영 및 한계마을 활동가 육성', '마을재생사업(마을만들기) 추진', '새로운 마을조성 (신규마을 조성)', '한계마을 연합회 조직',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촌마을 토지·주택 정보 제공', '방치된 빈집 등 경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등이 제시됨
- 서천군 한계마을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세부적인 조사·분석, 관련 주체의 수요조사, 한계마을 여건조사 등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비록 한계마을정책 세부사업에 있어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은 낮게 조사된 사업일지라도 그 취지나 목적에 따라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교육이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도와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